

평생학습도시 지정, 남구 발전 ‘파란불’

남구가 지난 8일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받았다. 주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인정을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주민들의 평생학습을 위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해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예정이다.

■주민학습육구충족기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으로써 명실공히 교육도시로서의 확고한 입지를 다지게 됐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학습육구를 충족시키고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강좌로 지역사회 발전의 공간이 되는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하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것도 매우 고무적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정주민족도를 높여 자치단체 간 무한경쟁 시대에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공민인 학습도시로서 연

령과 학력수준, 경제수준을 막론하고 다양한 학습자원이 가능하고 지역특

성을 살린 평생교육 사업을 개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일 것이다.

■지정을 위한 그간의 노력

남구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남구교육인적자원개발발전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며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해 왔다. 남구는 우선 지역 내 교육자원을 활용키로 하고 5개 대학교와 남부교육지원청, 부산박물관, 여성회관, 51개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등과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들의 학습육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하는 등 학습과 일, 삶이 하나 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매진해 왔다.

이와 함께 풍부한 교육·문화시설

자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인적

자원을 확충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

에 나섰다. 지역의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다양한 분야

의 전문가들을 배출하기 시작했다.



남구는 지난 2007년부터 주민들의 평생학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열어 호응을 얻고 있다. 남구가 최근부터 실시하고 있는 배달강좌 러닝콜 프로그램 중 하나인 하모니카 강좌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남구는 지역과 교육이 결합한 모범적인 사례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남구는 또 공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방과후학교의 취지를 살려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방과후교육지원센터 사업을 추진하여 교

육을 통한 지역 인적자원 활용이라는 새로운 지역 특화사업을 개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한 학습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여 문화생태해설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시작했다. 또 245명의 경력단

이재학 부구청장 취임

활기찬 도시 살기 좋은 남구 건설 ‘박차’

이재학 전 부산시 인재개발원장(사직)이 지난 1일 남구 부구청장으로 부임했다. 이 부구청장은 취임과 동시에 실·과·동·사업소 등의 업무 현황을 살펴는 한편 현안사업장을 찾으며 구정 챙기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부구청장은 “남구는 문현금융단지 조성 사업과 용호반·백운포지역 해양관광벨트조성사업 등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다”며 “그동안의 행정 경험

과 노하우를 살려 이러한 지역 현안을 해결함은 물론 30만 구민과 직원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활기찬 도시 살기 좋은 남구를 건설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구청장은 지난 74년 공직에 첫발을 내딛은 이후 97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 지자체행정과와 의회사무처, 교통기획과 등 주요 부서에서 업무를 익혔다. 2008년 지방서기관으

로 임명받아 정책 기획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의회사무처 기획재정전문위원, 총무담당관, 동구 부구청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지난해 지방 부이사관으로 승진, 부산시 인재개발원장으로 재직했다. 이 부구는 남구 부구청장으로 취임했다. 이재학 신임 부구청장은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업무처리 능력, 청렴근검한 생활로 공직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대연1동·우암동 시대 ‘활짝’

동 통합 개소식 열고 주민화합 지역발전 다짐

대연1동과 우암동이 최근 동 통합에 따른 개소식을 갖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대연1동은 지난 5일 주민센터에서 이종철 구청장과 시·구의원, 각급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일자로 대연1·2동이 대연1동으로 통합되고 통합동사무소를 대연1동사로 사용함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종철 구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동통합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지역의 주민과 직원들이 하나 돼 화합을 이루고 동이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 대연1동과 대연2동 동 폐합은 지난 2007년 안정행정부와 부산광역시 의인구 1만명 미만 소규모 동인 우암통합 방침에 따른 것으로 올해 3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대연1동 74%, 대연2동 65.4%가 찬성해 주민설명회와 남구의회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지난 1일 통합하게 됐다. 통합 대연1동사는 현 대연1동사무소를 사용하고 옛 대연2동사무소를 각자 쓰여 진다. 지하1층은 마을공동작업장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1층은 행정사무실로 사용하고 2층에는 주민자치프로그램실과 다목적회의실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와 앞선 지난 1일 오후 우암1동 주민센터에서도 우암1·2동 통합 개소식이 열렸다. 개소식을 마친 참석 내빈들은 주민센터 정문으로 자리를 옮겨 테이프 커팅식과 현관식을 갖고 동 통합과 개소식을 축하했다.

이날 김석연 동장은 우암1동과 우암2동 통합결과 보고를 통해 “지난 76년 분동된 이후 37년 만에 다시 통합 시대를 맞게 됐다”고 밝히고 “통합 찬반 설문 조사 결과 우암1동은 70.8%, 우암2동은 70.4%가 찬성해 지난 1일자로 통합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동사는 옛 우암1동사무소를 사용하게 되고 옛 우암2동사무소는 당분간 직원이 상주하며 민원상담과 무인민원발급기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1층은 헬스장과 직원사무실로 사용하며 2층과 3층은 주민자치프로그램실과 예비군 중대 사무실로 각각 쓰여 진다. 지하1층은 마을공동작업장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북항대교 사장교 폐합식 ‘북항대교 사장교 폐합식’이 지난달 24일 허남식 부산시장과 이종철·여운태 구청장, 김무성·서용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진절·청렴 상황극 남구는 지난 10일 구청 대강당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그동안의 획일적인 강의식 교육에서 탈피해 보다 입체적이고 효과적인 진절·청렴 상황극을 꾸며 무대에 올렸다.



오록도 여성대학 수료식 남구는 지난달 26일 구청 대강당에서 남구 거주 일반여성 250여명을 대상으로 5주간 10강좌로 진행된 제15기 오록도 여성대학 수료식을 가졌다.



재난 대비 방재교육 남구는 지난달 26일 구청 대강당에서 자살예방 재단 핵심요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방재교육을 실시했다.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새마을운동남구지회(지회장 김철)는 지난 달 21일 하동청소년 수련원에서 새마을지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를 가졌다.



안보환경 직원교육 남구는 지난달 28일 구청 대강당에서 직원 2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행정부 김진수 강사를 초청, 안보환경과 정부의 비상대비를 주제로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제6회 남구문화큰잔치 남구문화원(원장 성재영)은 지난달 25일과 26일 이틀간 부산예술회관에서 수강생들이 그동안 배우고 익힌 솜씨를 뽐내는 제6회 남구문화큰잔치를 열었다.



남부드림마당 공연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숙경)은 지난 16일 오후 구청 구민광장에서 관내 초·중·고교생과 학부모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부드림마당 행사를 열었다.

“여성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만들자”

2013년 남구여성대회

남구는 지난 5일 구청 대강당에서 제18회 여성주간 기념 2013년 남구여성대회를 열었다. 남구여성단체협의회(회장 안정애)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이종철 구청장과 서용국 국회의원, 시·구의원, 여성대표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안정애 회장은 대회사에서 “성폭력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와 양성평등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 우리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각계각층에서 여성리더들의 역량강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1부 기념식에서는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4명의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고 있는 용호4동 조원영·이경금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상 수상자로 선정돼 이날 상을 받았다. 이와 함께 여성권의 증진에 앞장서는 13명이 남구청장 표창을 받았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한혜선(오륙도여성대학 봉사자), 윤미정(아이코리아 남구지회), 하지윤



지난 5일 열린 2013년 남구여성대회 참가자들이 행사를 마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여성의용소방대 남구지회), 전순임(복지21 남구여성봉사회), 김화순(새마을부녀회), 김미정(새마을부녀회 후원회), 서인순(생활공동장점적 주부모니터), 박선옥(감만어린이집), 이원미(경성어린이집), 박희정(하늘빛어린이집), 정진선(동원어린이집), 서승희(남구종합사회복지관), 최영월(용호4동), 이어 남구 여성들은 We-Green 실천단으로서 ‘여성이 행복하

고 안전한 사회’를 목표로 녹색생활 실천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다짐하는 결의문 낭독과 결의대회를 가졌다. 2부 행사에서는 스크린을 통해 단위 단체별 활동사항과 실적이 소개됐으며 3부 화합한마당 순서에서는 참가자들이 조별 대항전과 단체별 장기 자랑, 경품추첨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남구도서관

다문화자료 코너 설치

결혼이주인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게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도서관 자료 코너가 도서관 종합자료실에 생긴다. 남구도서관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3년 다문화자료실(코너) 조성사업”대상기관으로 선정돼 7월 15일부터 다문화자료 코너를 만든다고 밝혔다. 국·시비 6900만원을 들여 조성되는 다문화자료 코너는 560㎡ 규모의 도서관 3층 종합자료실과 여학생실을 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한 다음 8월말 개장할 예정이다. 도서관은 또 다국어 리플렛 제작과 다문화 자료 코너별 포스터, 다문화 자료 구입을 병행 추진하며 최고의 시설과 자료를 갖춘 명품 다문화자료실로 가꿔나갈 계획이다. 한편 남구도서관은 도서관 노후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8월 30일까지 휴관한다.

UN참전용사 조형물 세운다

평화공원에 설치, UN평화문화특구 랜드마크

남구는 세계평화와 자유수호를 위해 희생한 UN참전용사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평화와 호국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대연동 평화공원 중앙수반에 세운다. 남구는 국가보훈처로부터 8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현충시설 건립사업의 하나로 6·25전쟁 UN참전용사 조형물 건립사업을 추

진한다. UN평화문화특구의 랜드마크가 될 조형물 설치를 위해 남구는 7월까지 제안서를 접수 받아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올해 말까지 설치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4월말 준공할 예정이다. ☎607-4044

남·수영구, 부산에서 가정 안전한 도시

남부경찰서 체감안전도 조사서 부산청 1위

남구와 수영구가 부산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경찰청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벌인 체감안전도 조사결과 밝혀졌다. 일반 국민 9천명을 대상으로 범죄와 교통사고, 범죄시 준수 등 안전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묻는 이번 조사에서 남부경찰서(서장 박화병)가 부산지방경찰청 산하 15개 경찰서 중 1위를 차지했다. 남·수영구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부산남부경찰서는 이번 설문에서 체감안전도 68.9점을 기록, 다른 경찰서에 비해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범죄안전도 부문은 74.8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부산남부경찰서는 체감안전도 부산

청 1위를 토대로 4대 사회악 척결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하고 타세요

지난해 12월1일부터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법을 어기고 운행하고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법에는 이륜자동차에 번호판을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공공용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소유권 증명서류와 보험가입증을 소지하고 주소지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찾으면 된다.

남구漫評

채규중



‘마무리 공사 중’